내 인생에 남은 기회 계산법

(잠언 29:1~27)

1.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에 남은 기회 계산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 인생에 남은 기회 계산법'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1절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27절까지 구절마다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의 내용이 깊어서 오늘은 이 구절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각 장의 앞부분을 다루었습니다만 29장까지 오면서 주제가 반복됨을 보았습니다. 미처 다루지 못하고 넘어갔던 뒷부분의 말씀들이 어떤 장에서는 앞 구절에서 다시 다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반복되는 주제들을 거의 다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은 미련한 사람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을 많이 보았지만 깊고 귀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흔히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카이로스(Kairos)'라는 기회의 신이 등장하고 '크로노스(Chronos)'라는 시간의 신이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를 '기회'라는 말로 같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곧 특정한 때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인들에게는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가 기회라는 말로 사용되는 것이 옳으냐는 의문이 듭니다.
카이로스 기회의 신의 모습은 앞머리가 길어서 얼굴이 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회를 앞에 두고도 그것이 기회인줄 깨닫지 못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일단 알아볼 수만 있다면 긴 앞머리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뒷머리는 민머리입니다. 기회가 나를 스쳐지나가고 나면 머리카락이 없어서 움켜쥘 수가 없습니다. 또 어깨와 다리에 날개가 달려있어서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가버립니다.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럴싸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착각입니다. 특히 복음과의 연관성에서 말하자면 기회는 점이 아닌 선입니다. '인생에 세 번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중에서 몇 번을 사용하셨고 몇 번 남았습니까? 그러나 신앙인의 기회는 셀 수 없

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 기회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회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끝나는 것입니다. 기회는 점이 아닌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줄곧 지속되어 오던 기회가 갑자기 끊어지는 것이지, 없던 기회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드문드문 몇 번의 점 같은 기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선 같은 기회가 이어지다가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 갑자기 끝이 납니다.

복음을 통해 알게 된 인생관이 이 깨달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책망이 어떤 책망인지, 목이 곧음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도 목이 곧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았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당시 유대사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목이 곧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자면 예수님께도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살고 있느냐?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왜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을 자청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느냐?'라고 수없이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책망을 무시하시다가 기어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1절을 문자적으로만 보자면 예수님의 삶도 미련한 자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책망의 원인과 목이 곧음의 대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목이 곧았다면 어땠을까요? 뱀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목이 곧았다면 타락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책망과 목이 곧음 가운데, 오늘 잠언이 말하는 것은 지혜와 연관된 책망입니다. 바로 미련함에 대한 책망입니다.
미련함은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인한 어처구니없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유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시도록 지음 받은 마음 공백에 티끌 같은 세상의 가치를 들여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마음이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에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가치를 마음에 들여놓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고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곧 맷돌을 돌리기 위한 손잡이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로 접하는 것들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미련함을 버릴 방법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번제였고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경계하는 목이 곧음은 유전적 체질에 의해서 이 세상가치를 잡고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는 고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아서 끝내 미련함을 유지하면 그 결과로 갑자기 패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패망으로 번역된 원문을 살펴보면 '깨뜨린다,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4절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지구에 사는 인류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미련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지고 어처구니없는 인생을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왜 살려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람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마음 공백으로 인해 생기는 채움에 대한 욕구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마음을 세상가치로 채운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을 살려두시는 이유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만나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마음 채움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기회입니다. 육체를 통해 접하는 세상의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들보다 육체로 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삶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기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내 미련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어처구니없는 삶을 살면서, 세상가치를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으로 이어져온 기회가 갑자기 끊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기회는 선으로 주어졌지만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망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터무니없는 믿음이 작동하는 가운데 돈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돈이 기쁨과 만족을 주리라고 믿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책망은 돈을 못 벌게 되는 것으로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원하는 만큼 돈을 벌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

님의 책망인줄 깨달아야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 책망을 자주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기회는 갑자기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주인에 대한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주유영을 하던 중에 우주왕복선이 폭발하면 영원히 우주를 떠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을 모시도록 만들어진 마음을 티끌 같은 세상가치로 채우려 했으니, 영원토록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지옥에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육체의 의미는 곧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알아줄만한 일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도 못할 수 있습니다. 결혼했더라도 실패해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고 있지만 그 꼴이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겨우 직장을 가졌더라도 승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몸에는 갖가지 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중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종신형을 언도 받아 감옥에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심지어 배우자까지도 완전히 등을 돌릴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버림받아 철저히 혼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정이 이렇더라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염두에 두자면 기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생각해보면 육체가 살아있는 한 기회는 계속됩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종신형을 언도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아무것도 잃은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있다면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도 낫지 않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한 감옥에 있는 사람도 아직은 잃은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온갖 명예를 다 누리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한 기회는 있습니다.

요새 미투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배우 조민기 씨가 자살했습니다. 그렇게 자살하기까지의 마음의 절망감과 수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체의 목숨을 통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온갖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기회삼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실패하고 격리된 상황이야 말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에 놓인 것입니다. 조민기 씨도 아내와 딸에게조차 버림받았다는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면 어땠을까요. 거지 나사로에게는 부모도 친척도 없고 재물과 명예도 없었습니다. 몸에 난 상처를 개들이 핥았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오직 하

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어떤 것도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태어난 목적입니다.
판검사가 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것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붙드실 손잡이가 생겨납니다. 어처구니가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삶으로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식해야 하는 것은 인류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친구를 위해 단순히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사람은 친구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한 진정한 배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재료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추진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출발하기도 전에 아내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치안부재의 길을 나서면 아내를 지켜낼 수 없으리라 여겼기에 마음에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여쁜 아내를 주신 이유는 기쁨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어여쁜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여쁜 아내는 하나님 사랑을 위한 기준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백세에 주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이들이었기에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을 주신 이유는 아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을 위한 표현의 기준이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이 그랬고, 아내 사라도 그랬고 독자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직장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설령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도 육체는 있습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육체 밖에는 가진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를 기준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하나님 사랑의 기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육체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적으로 사랑하셨기에 마

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운전하신 결과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생애가 되신 것입니다.

기회는 세 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기회는 인생의 전환점(Turning point)의 의미로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은 십자가입니다. 배우자로 만족하려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배우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기대했던 기쁨의 양 만큼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을 향하던 마음을 하늘로 돌리는 것이 전환점이 됩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을 전환점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유전죄적인 습성은 땅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것에 대해 죽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육체가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전환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회는 몇 번 주어지는 점이 아닌 선입니다. 기회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속되는 책망에도 이 기회를 깨닫지 못한다면 선처럼 이어져온 기회가 갑자기 끊어지는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기에 지금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성공이나 형통을 바랄 때가 아닙니다. 배우자와 가족들을 더 사랑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명예를 추구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귀중한 가치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하는 유전죄적 체질이 발동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전환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좋게 여겨지는 것들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기회로 생을 채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점으로 된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지속되는 기회를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생활화로 전환점을 만들며 주어지는 모든 소중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사랑을 실현하는 기회 활용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